

## 신라백제목간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Wooden Tablets between Silla and Baekje

---

저자 (Authors)	이경섭 Lee, Kyoung-sup
출처 (Source)	<a href="#">신라문화 44</a> , 2014.08, 29-42(14 pages) <a href="#">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44</a> , 2014.08, 29-42(14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a>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97020">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97020</a>
APA Style	이경섭 (2014). 신라백제목간의 비교 연구. 신라문화, 44, 29-4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5 13:45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신라 · 백제목간의 비교 연구\*

이 경 섭\*\*

<目 次>

- |                     |            |
|---------------------|------------|
| I. 머리 말             | IV. 장방관형목간 |
| II. 한국 고대목간의 형태적 특징 | V. 꼬리표목간   |
| III. 다면 · 원주형목간의 추이 | VI. 맺 음 말  |

[국문초록] 한국의 고대 목간은 성산산성 목간의 출토 이후 지속적으로 보고되면서 이제 한국고대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적인 지위를 차지하였다고 생각된다. 현재까지 신라 목간이 561점, 백제 목간이 214점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한국 목간의 특징 속에서 신라와 백제목간의 비교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은 신라와 백제의 목간을 형태상의 특징을 비교 연구하여 고대 목간문화의 전개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신라에서는 7세기 무렵까지 다면목간과 원주형목간이 문서를 비롯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지만, 백제는 7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형태의 목간들이 습서(習書)의 용도 등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에 동반해서 장방관형목간이 정형화 · 정제화되었다. 홈형목간의 경우도 신라와 백제는 홈을 새기는 위치나 개수 등에서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신라와 백제의 목간문화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을 말하는데, 이는 국가제도의 정비와 발전 그리고 문자문화의 전개와도 긴밀히 연계되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간문화의 진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7세기 단계에서는 백제의 그것이 신라 보다는 시간적으로 앞서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바로 이와 같은 7세기 이후 백제목간이 고대 일본의 목간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영문초록] Ancient wooden tablets of Korea have consistently been reported since the excavation of wooden tablets at Seongsan Mountain Fortress. Today they hold an important position as a material in ancient history of Korea. There are 561 Silla wooden tablets and 214 Baekje wooden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C-A00030).

\*\* 동국대학교 강사

tablets excavated so far, but no research has compared them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wooden tablets. This study thus set out to compare and examine Silla and Baekje wooden tablets for their formal characteristics and traced the development patterns of ancient wooden tablet culture.

In Silla, they made broad use of multi-sided and circumferential wooden tablets across many areas including documents by the 7th century. In Baekje, the uses of such wooden tablets were restricted to practice books in the 7th century with the rectangular plate type being standardized and refined. There were also differences in the location and number of grooves in groove-type wooden tablets between Silla and Baekje.

Thos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are certain differences in wooden tablet culture between Silla and Baekje, where the wooden tablet culture seems to have developed in close relation to the arrangement and development of national institutions and the development of character culture. Considering the progress of wooden tablet culture, Baekje was ahead of Silla in the phase of the 7th century. It is estimated that Baekje's wooden tables had direct influences on the wooden table culture of ancient Japan since the 7th century.

[주제어] 목간(wooden tablets), 신라(Silla), 백제(Baekje), 다면형목간(wooden tablets of multi-sided type), 원주형목간(wooden tablets of circumferential type), 장방판형목간(wooden tablets of rectangular plate type), 홈형목간(wooden tablets of groove type)

## I. 머리말

한국의 고대 목간은 성산산성 목간의 출토 이후 지속적으로 보고되면서 이제 한국고대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적인 지위를 차지하였다고 생각된다. 현재까지 신라와 백제의 목간이 확인되었으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신라 목간이 561점,<sup>1)</sup> 백제 목간이 214점<sup>2)</sup>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록 중국 간독이나 일본 목간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이지만, 새로운 내용의 목간 자료가 지속적으로 발굴·보고되면서 목간에 대한 관심과 연구 또한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성산산성 목간의 발굴 이후, 초기에는 개별 유적들에서 출토되는 목간 그 자체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들이 전개되다가 점차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한국 목간문화

1) 이경섭, 2013 「新羅木簡의 출토현황과 분류체계 확립을 위한 試論」, 『新羅文化』42

2) 윤선태, 2013 「백제목간의 연구현황과 전망」, 『百濟文化』49

와 그 속에서의 신라·백제목간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전개되고 있다.<sup>3)</sup> 이렇듯 목간 연구의 외연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정작 학계 내부적으로 목간 연구의 전체라고 할 수 있는 형태 및 용도와 같은 기초적인 분류체계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아직까지 확립되지 못한 기초적인 분류체계는 목간을 하나의 전체적인 자료로 이해하면서 한국의 목간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목간을 형태상으로 長方(板)形·다면형·원주형·홈형·기타형으로, 용도상으로는 크게 문서·꼬리표[附札]·기타 목간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sup>4)</sup> 대체로 형태 분류는 목간의 형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고자 하였으며, 용도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목간들을 크게 분류하여 단순화하고자 그 아래에 세부적인 분류안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같은 분류안을 토대로 한국 목간문화 안에서 신라목간과 백제목간의 비교를 시도해 보려고 한다. 특히 목간은 용도에 따라 그 형태가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형태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신라와 백제목간을 비교하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알려진 목간의 수가 적은 관계로 이러한 비교 연구가 충분히 수긍할만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목간들은 형태적으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목간 연구를 위한 토대적인 작업으로 유의미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신라목간과 백제목간의 공통점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목간문화의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II. 한국 고대목간의 형태적 특징

한국 고대목간의 형태적 특징에 대하여 ‘다면목간문화’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윤선태는 월성해자목간과 안압지목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다면(원주형)목간이 6~7세기에 월등히 많이 사용되었고, 8세기 이후에 현저히 축소되어 소멸한다고 보면서 한국 목간의 특징을 ‘다면목간문화’라고 하였다. 그리고 6~7세기 다면

3) 이용현, 2006 『한국목간기초연구』, 신서원 ; 윤선태, 2007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주류성 ; 이경섭, 2013 『신라 목간의 세계』, 경인문화사.

4) 이경섭, 2010 「‘백제목간’의 가능성에 대한 예비적 고찰」 『百濟論叢』9 ; 2013 앞의 논문.

목간이 널리 사용된 것은 6세기 이후 紙木並用期에 접어들면서 그 이전 시기에 사용되던 편철간이 사라지고, 다면(원주형)목간이 편철간이나 종이의 대용으로 널리 사용되었다고 한다. 나아가 7세기 이후의 죽간과 편철간이 확인되지 않는 일본 목간은 고대 한반도에서 지목이 병용되던 7세기 이후의 목간 사용법이 전파된 것으로 이해하였다.<sup>5)</sup>

여기에서 다면(원주형)목간문화를 한국 고대목간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한 점에는 동의하지만, 고대 한국은 중국의 전통적인 죽간과 편철간이 배제된 단독간의 목간문화를 수용하였다.<sup>6)</sup> 이후 고대 한국에서 국가와 제도의 발전은 더 많은 정보를 목간에 書寫할 수 있기를 원했고,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단독간이 도달할 수 있는 형태는 다면(원주형)목간이었다고 생각된다. 목간문화가 점차 고대국가의 발전에 동반하여 성숙해 감에 따라 중국의 간독과 마찬가지로 정형화와 규격화가 요구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서사재료의 변화와 종이의 문서행정이 도입되어 제도화되면서<sup>7)</sup> 목간의 정형화·규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면(원주)형목간은 7세기 후반 이후 문서의 서사재료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부차적인 서사재료로 활용되었던 것이다.<sup>8)</sup>

그러나 '다면목간문화'가 한국 목간의 특징이라는 점은 신라목간뿐만 아니라 백제목간을 통해서도 확인되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시각이라고 생각된다. 다음 장에서는 다면(원주형)목간이 신라와 백제목간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 
- 5) 윤선태, 2007 앞의 책, pp. 53~74. 다면목간은 편철간시대와 지목병용시대의 중간적 특질을 지닌 유물이며, 중국 현대의 '편철간문화'와 고대 일본의 '단책형목간문화'와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 6) 고대 한국으로의 목간문화 유입은 고조선 멸망 후 한사군의 설치를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중국 漢代의 죽간문화는 당시 한반도 서북지역 대나무 식생의 한계로 말미암아 목간의 문화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낙랑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논어죽간의 경우는 당시 중국 내지에서 제작되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아니면 가공된 죽간들을 수입해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이경섭, 2013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목간을 통해서 본 한국 목간의 형태와 내용 분류에 대한 연구」 『新羅史學報』27 참조.
  - 7) 이경섭, 2011 「이성산성 출토 문자유물을 통해서 본 신라 지방사회의 문서행정」 『역사와 현실』81, pp. 92~95.
  - 8) 신라의 경우와 달리 백제는 7세기를 전후하여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실은 신라와 백제의 (목간문화를 포함한) 문자문화의 발전 정도와 관련되며, 또한 일본 목간을 설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이에 대한 견해를 일부 발표한 바 있는데(2010 앞의 글, pp. 293~296), 추후 본 발표를 정리하면서 보완할 계획이다.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Ⅲ. 다면·원주형목간의 추이

다면(원주형)목간은 우선 월성해자 목간과 안압지 목간의 시간적 추이에 따른 신라목간의 분석을 통하여 제기되었고, 이성산성 목간이나 최근 새롭게 알려지고 있는 성산산성의 다면목간을 통해서도 6~7세기 신라 목간의 특징으로 이해된다고 보인다.

백제의 다면목간은 주로 능산리사지 목간들에게서 확인되며, 궁남지 목간 1점, 현내들 목간 1점 등이 보고되었다. 궁남지와 현내들 목간은 7세기 초 혹은 전반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둘 다 습서목간으로 사용되었다. 6세기 중후반의 것으로 생각되는 능산리의 다면목간들은 대다수가 문서목간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백제의 다면목간이 문서목간의 용도에서 습서의 용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6세기 중후반→7세기 전반) 변화하고 있는 양상은 나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싶다. 어쩌면 당시 백제사회에서 주도적 서사재료의 교체가 이루어지던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월성해자 2호 목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신라의 왕경에서는 560년대에 寫經用 종이를 구매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sup>9)</sup> 물론 이 무렵은 종이와 목간을 함께 사용한 시기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점차 종이의 문화가 확산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백제는 당시 신라에 비하여 중국의 문화를 낙랑과 대방군을 통하여 이른 시기부터 받아들여 왔으며 이미 近肖古王대에 書記의 문서행정이 국가적으로 도입되어 전개되었다.<sup>10)</sup> 나아가 540년대에는 南朝 梁의 명사인 蕭子雲의 글씨를 값비싼 대가까지 치루면서 얻으려는 백제 사신의 모습이 알려지기도 한다.<sup>11)</sup> 이는

9) 이경섭, 2009 「신라 월성해자에서 출토한 '2호 목간'에 대하여」 『한국고대사연구의 현단계』, 주류성, pp. 399~424.

10) 古記云 百濟開國已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 得博士高興 始有書記 然高興未嘗顯於他書 不知其何許人也(『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2 近肖古王 30년)

11) 出爲東陽太守 百濟國使人 至建鄴求書 逢子雲爲郡 維舟將發 使人於渚次候之 望船三十許步 行拜行前 子雲遣問之 答曰 侍中尺牘之美 遠流海外 今日所求 唯在名迹 子雲乃爲停船三日 書三十紙與之 獲金貨數百萬(『南史』 권42 列傳32). 『梁書』 권35 열전29 蕭子恪 弟子範 子顯 子雲 蕭子雲전에 따르면 소자운은[486~548]은 大同 7년(541)에 仁威將軍·東陽太守가 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글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소자운으로부터 받은 ‘書三十紙’는 종이였음에 분명하다. 이러한 모습으로 볼 때 6세기를 경과하면서 백제 사회에 종이에 대한 인식과 사용이 확산되어 갔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목간의 시대가 종언을 고했던 것 같지는 않다. 7세기의 문서목간으로 추정되는 부여의 궁남지, 쌍북리, 관북리 출토 목간들과 나주의 복암리 목간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문서목간들은 대부분 장방관형이며 많은 수의 글자와 몇 행, 몇 단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서식으로 이루어진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다면목간이 광범위하게 점유하던 문서목간을 7세기 이후에는 장방관형 목간이 대다수를 차지 하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제도의 복잡화에 따른 문서행정의 진전이라는 필연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종이문서의 書式 등이 문서목간에 반영되는 경향도 하나의 이유였을 것이다. 아무래도 다면목간은 한 면에 1행 이상을 쓰기는 불편하였기 때문에 종기와 같은 평면형의 서사재료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다면목간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후 장방관형 목간이 더욱 精製化된 整形性을 띠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다면목간은 7세기 전반 이후 문서목간의 주도적 지위를 상실하면서 점차 習書 등의 한정된 용도로 사용되는 낮은 서사재료의 지위를 유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신라에서는 통일 이전까지 다면(원주형)목간이 문서목간을 비롯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백제의 경우 다면(원주형)목간의 용도가 7세기에 접어들면서 습서 등의 용도로 한정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이와 관련해 백제의 문서목간 가운데 기록류의 목간들도 6세기에서 7세기를 경과하면서 다면목간에서 장방관형목간으로 변화되어 갔다고 여겨진다.

#### IV. 장방관형목간

長方板形 목간은 가늘고 긴 장방형의 표면과 얇은 두께를 지닌 목간을 의미한다.<sup>12)</sup> 이러한 형태로는 신라에서 월성해자 20호, 안압지 3호, 경주박물관부지 1호,

12)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細長形, 短冊形으로 불렀던 목간인데, 세장형은 목간의 표면만을 묘사하는 표현이고 단책(은) 고대 일본에서만 확인되는 용어이므로 한국목간의 분류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외에 이용현은 ‘홀(笏)형’ 목간이라고 분류하였는데, 용어상으로 목간의 형태가 선뜻 떠오르지 않는 문제가 있다(2006 「신라목간의

경주 황남동 1호, 이성산성 목간에서 널리 출토되고 있다. 크기가 비교적 대형이며, 전 시기에 걸쳐 문서목간이나 글자연습 등 기타 용도로 널리 사용되었다.

백제목간에서도 완전한 형태로 출토된 목간 가운데 장방관형 목간이 비교적 많이 확인되고 있다. 장방관형은 부여지역뿐만 아니라 나주 북암리목간에서도 확인되어 당시 백제사회 전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목간의 형태였던 것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구멍을 뚫은 경우도 많이 확인되는데, 이는 보관·묶음과 같은 단순한 편의를 위해서나 목간의 용도와 관련하여 매달기를 위해서 구멍을 뚫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목간 중에는 일반적인 직사각형 모양이 아닌 것이 존재하는데, 그와 같은 형태로 나주 북암리 12호 목간과 관북리 285호 목간이 유의된다. 북암리 12호 목간의 경우 완형으로 상단과 하단부의 모서리를 반원형으로 다듬었으며, 관북리 285호도 하단이 파손되었으나 상단을 반원형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형태의 목간은 장방관형 목간으로부터 파생된 형태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며, 목간을 보다 정형화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완형의 장방관형 목간은 길이가 가장 긴 것이 607mm(북암리 4호)에 이르며, 가장 짧은 것은 126~127mm(관북리 288호·능산리 305호)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능산리 305호는 일종의 편지글(書簡)로 추정되고 있으며<sup>13)</sup> 그 형태에 있어서도 다른 목간들에 비해 넓고 두꺼워 일반적인 장방관형 목간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sup>14)</sup> 관북리 288호 목간은 다른 장방관형 목간들의 경우 다수가 문서목간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음에 비해 ‘下賤相’이라는 목서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지만 꼬리표목간일 가능성이 높다. 장방관형이지만 꼬리표목간으로 사용된 예는 북암리 8호 목간이 확인된다. 이 목간은 하단이 파손되었으나 ‘上去三石’의 三石과 상단의 구멍으로 보아 꼬리표목간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꼬리표목간으로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장방관형 목간은 길이 260mm, 너비 30mm, 두께 5mm 정도가 대체적인 평균적인 크기로 제작·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일반적인 경향에 기초하여 장방관형 목간의 크기는 북암리 5호와 궁남지 295호, 쌍북리 좌관대식기 목간의 사례에서처럼 목간의 면에 써넣어야 되는 내용에 따른 서식과 문자의 수에 따라 조정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형상과 규격」 『韓國木簡基礎研究』 및 같은 책, p. 8 일러두기 참조.

13) 이용현, 2007 앞의 글, pp. 293~294.

14) 윤선태는 이 목간을 木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하였다(2007 앞의 책, p. 148).





복암리 4호



복암리 5호



능산리  
296호



능산리  
298호



능산리  
297호



궁 1



궁남지 295호



쌍북리 280-5  
좌관대식기



북암리 12호



관북리 283호



관북리 288호



북암리 8호



능산리 305호



관북리 285호

구분	길이	너비	두께	특징
능산리 296호	275	22	8	
능산리 297호	245	26	10	
능산리 298호	218	20	3	
능산리 305호	127	30	11	
관북리 283호	(196)	42	4	하단 파손, 구멍
관북리 285호	(122)	42	2	하단 파손, 구멍?
관북리 288호	126	25	5	구멍
현내들 85-10호	245	26	5	구멍, 목서×
쌍북리 좌관대석기	(290)	32	4	하단 일부 파손
궁남지 295호	350	45	10	
궁남지 1호	255	19	6	
복암리 4호	607	50	5	
복암리 5호	185	27	6	구멍
복암리 8호	(140)	21	6	하단 파손, 구멍
복암리 12호	190	24	5	구멍

<표 1> 장방관형 목간의 크기(단위 : mm)

## V. 홈형목간

목간의 용도는 크게 문서목간, 꼬리표목간, 기타 용도의 목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꼬리표목간은 주로 이동하는 짐에 부착되는 짐꼬리표와 창고에서의 보관이나 물품 정리 등을 위해 부착하는 물품꼬리표로 나뉘어진다. 대체로 이들 꼬리표목간의 형태는 홈형으로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꼬리표목간의 형태에서 백제와 신라목간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함안 城山山城에서는 6세기 중반 신라지방사회에서 제작된 짐꼬리표(荷札)목간이 대규모로 발굴·보고되었다. 그런데 함안 성산산성목간의 대부분은 홈이 파여진 반대방향인 아래쪽에서부터 문자를 기입하고 있다. 통일 이전 신라의 王京에서 사용되다가 폐기되었던 月城垓子목간의 꼬리표목간들도 성산산성 꼬리표목간과 마찬가지로 홈을 새긴 위쪽이 아닌 아래쪽에서부터 문자를 쓴 경향성이 확인된다. 이에 반해 백제의 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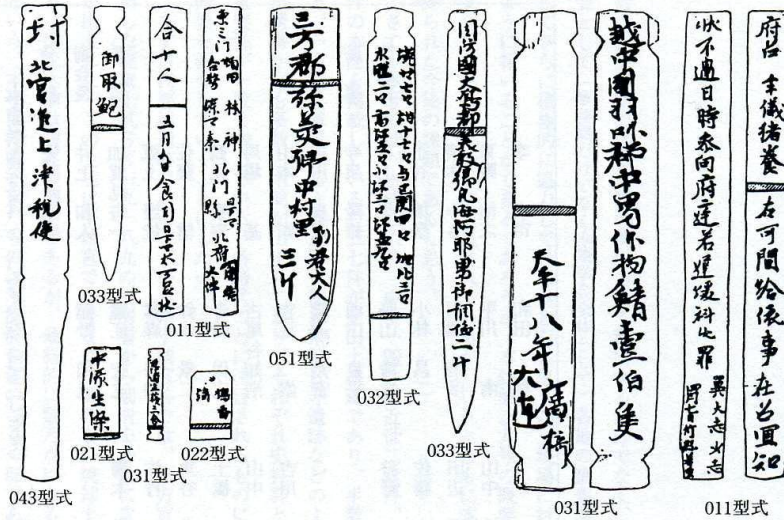
리표목간은 그 개체 수는 적으나 모두 홈이 있는 상단에서부터 문자를 기입하고 있다. 이는 꼬리표목간의 제작관행에 양국 사이의 차이가 있었으며, 목간문화라는 시각에서 하나의 유의미한 차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sup>15)</sup> 이렇듯 꼬리표목간의 홈을 새긴 부분을 위로 삼아 문자를 기입하던 서사습관은 백제와 고대 일본이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인다.<sup>16)</sup> 이같은 사실은 백제의 목간문화가 고대 일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생각해 두고 싶다.



위의 사진으로 제시한 백제 관북리 출토 꼬리표목간은 목간의 양단에 홈을 새긴 경우인데, 현재까지 이러한 형태를 지닌 초기의 한국 목간은 찾아보기 힘들다.

- 15) 전덕재, 2009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목간의 형태와 제작지의 검토」 『木簡과文字』3
- 16) 일본 꼬리표목간의 경우 문자를 써내려가는 윗부분에 홈을 새긴 032·033형식과 위와 아래 모두 홈을 새긴 031형식이 대표적이다(<일본목간의 형태분류> 참조). 이러한 형태는 고대 한국의 사례에 견주어 볼 때 홈을 한번 새기는 것이 원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백제목간에서도 아래 위에 홈을 새긴 꼬리표목간이 확인된다.

대체적인 흠형(꼬리표)목간의 흐름으로 볼 때 흠은 위나 아래에 하나를 새기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으며, 점차 양단에 흠을 새긴 목간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양단 흠형의 목간은 일본목간의 031형식에 해당하며, 현재까지의 자료로 볼 때 이는 백제목간의 영향이었을 가능성을 지적해두고 싶다.



<일본 목간의 형태 분류>

## VI. 맺음 말

고대 일본의 목간에서는 다면(원주형)목간의 형태를 찾아보기 힘들며,<sup>17)</sup> 대표적인 일본 목간의 형태 분류에서도 다면(원주형)목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앞선 연구에서 한국 고대목간의 특징으로 '다면(원주형)목간문화'를 지적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일본목간의 현상을 근거로 이르렀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목간문화가 고대 일본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 목간문화의 특징인 다면(원주형)목간이 고대 일본에서 쉽게 확인되지 않는 점은 의문이다.

17) 고대 일본의 다면목간에 대해서는 이경섭, 2009 「古代 韓日の 文字文化 交流와 木簡」 『新羅文化』34, pp. 283~290 참조.

이 문제는 고대 한국의 신라목간과 백제목간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에서는 7세기 무렵까지 다면목간이 문서를 비롯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지만, 백제는 7세기에 들어서면서 다면목간의 용도가 습서 등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에 동반해서 장방관형목간이 정형화·정제화되었다. 홈형목간의 경우도 신라와 백제는 홈을 새기는 위치나 개수 등에서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신라와 백제의 목간문화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을 말하는데, 이는 국가제도의 정비와 발전 그리고 문자문화의 전개와도 긴밀히 연계되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간문화의 진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7세기 단계에서는 백제의 그것이 신라보다는 시간적으로 앞서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바로 이와 같은 7세기 이후 백제목간이 고대 일본의 목간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목간의 형태적인 측면을 살펴 보면서 도달한 결론이지만 향후 목간의 내용과 문자문화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면 보다 분명한 결론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투고일 : 8월 13일, 논문심사완료일 : 8월 14일, 논문게재확정일 : 8월 18일]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저서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한국목간사전』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韓國의 古代木簡』
- 木簡學會 編, 1990 『日本古代木簡選』, 岩波書店
- 木簡學會 編, 2003 『日本古代木簡集成』, 東京大學出版會
- 윤선태, 2007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주류성
- 이경섭, 2013 『신라 목간의 세계』, 경인문화사.
- 이용현, 2006 『한국목간기초연구』, 신서원

2. 논문류

- 윤선태, 2013 「백제목간의 연구현황과 전망」 『百濟文化』49
- 이경섭, 2009 「古代 韓日의 文字文化 交流와 木簡」 『新羅文化』34
- 이경섭, 2009 「신라 월성해자에서 출토한 '2호 목간'에 대하여」 『한국고대사연구의 현단계』, 주류성
- 이경섭, 2010 「'백제목간'의 가능성에 대한 예비적 고찰」 『百濟論叢』9
- 이경섭, 2011 「이성산성 출토 문자유물을 통해서 본 신라 지방사회의 문서행정」 『역사와 현실』81
- 이경섭, 2013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목간을 통해서 본 한국 목간의 형태와 내용 분류에 대한 연구」 『新羅史學報』27
- 이경섭, 2013 「新羅木簡의 출토현황과 분류체계 확립을 위한 試論」 『新羅文化』42
- 전덕재, 2009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목간의 형태와 제작지의 검토」 『木簡과 文字』3